# “대행 선사 한마음 사상, 번뇌 원인 제거하는 치유철학”

## 대행선연구원, 3월 16일 제18회 계절 발표회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치유철학 관점 한마음 사상 조명**
**일심 개념을 한마음, 주인공으로**
**주인공은 마음수행을 돕는 개념**
**내맡겨 괴로움 근원 해결해 치유**



대행선연구원은 3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제1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표회에 참석한 (사진 아래 왼쪽부터)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과 발제자 · 논평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처음 공부할 때 아무 방편이 없으면 허망해 어떻게 할 줄 모르기에 주인공이라 한 것이다.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형성시켰어도 모든 것이 또한 실답지 않기에 주인이자 빌 공(空) 자 ‘공’이니 주인공(主人空)이다. 문이 열려질 때까지 주인공을 잡고 가라. 주인공은 대문 빗장이다.”**
**–〈한마음요전〉 514~515쪽**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주창한 생활선 수행법인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 “인간의 근원적 괴로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철학 체계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3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치유철학으로서의 한마음 사상 연구’를 통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 전반이 중생의 치유에 초점이 맞춰진 사상·철학 체계임을 분석했다.

지혜경 연구원에 따르면 마음이라는 개념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거치면서 ‘분별하기 이전의 생명의 본능’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게 됐고, 이는 불성과 여래장 개념으로 발전됐다. 유식계열에서는 아뢰야식이 인간의 심층의식인 일심(一心)이고, 〈대승기신론〉 등에서는 여래장을 ‘일심’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지혜경 연구원은 “일심에 대해 원효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이해했으며, 실상·진여·아뢰야식·불성·여래장 등과 동일시했다”며 “대행선은 원효의 일심 개념을 선불교의 전통 속에서 재해석하고 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시킨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행 선사가 보인 한마음 사상은 전통적인 마음담론과 용어를 수용하면서 ‘한마음’과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선불교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철학체계를 세웠다.

지혜경 연구원은 “한마음이라는 용어를 통해 심층의식은 개인을 넘어 전체의 심층의식으로, 모든 존재 전체의 본원적 생명, 근거, 근원으로 확장된다”면서 “이 개념은 나와 타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나와 타자를 평등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인공은 수행자를 위해 방편적으로 세운 이름이다. 대행 선사는 주인공에서 마지막을 ‘공(空)’으로 표현함으로써 수행 주체를 실체로서 집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면서 “주인공은 수행의 직접적인 주체이며 대상이 되면서도 실체가 아니다. 주인공은 업을 소멸할 힘이 있는 개인의 수행을 위한 한마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주인공의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참나(주인공)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행선의 수행법은 간단하다. “주인공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믿고, 고통·슬픔·기쁨 등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내맡기고 돌려놓는 것”이다.

그렇다고 맡긴다는 것이 절대자에게 구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경 연구원에 따르면 구복적 기도는 “맡기는 나(거짓 나)가 받아들이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주인공)를 분리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주인공 수행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주인공이 모든 일의 주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되 자신의 몫을 그냥 하는 것”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주인공 관법’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혜경 연구원은 “주인공 수행은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긴다. 내맡기는 방법은 언제든 ‘주인공’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 된다”면서 “믿음에 의한 주인공 수행은 주인공을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 주인공은 바로 한마음이기에 그 순간 우주 근원으로부터 분리됐던 내가 근원으로 다시 결합하게 된다. 이것이 주인공에게 내맡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음과 실천적 수행 이론인 오공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알려주고, 주인공을 한마음과 에고의 매개 개념으로 세워 수행을 용이하게 돕는다”면서 “이처럼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은 인간의 근원적 괴로움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철학 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성옥·이관수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공동으로 ‘자타의 구별 없는 한마음의 이해’를 발표했다. 이들은 사람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의 마음이 독립적인 단일체일 수 없다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나의 마음은 항상 다른 마음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것이어서 자타의 구분이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발표회의 좌장은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논평자로는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 오진영·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또한,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이 제주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했다.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길 기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설하신 ‘한마음’이 얼마나 많은 주제로 돌아갈 수 있고 쓰일 수 있는지 학술대회와 계절 발표회를 하면서 수없이 느낀다”면서 “대행선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마음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달라. 〈한마음연구〉가 등재지가 된다면 선사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되려면 90여 가지의 등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5월까지 심사에 등록하기 위해 서류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대 전승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음연구〉가 국가 학술지로 등재되길 발원하고 또 발원한다”고 밝혔다.

# “인종차별 뛰어넘어 함께하는 한국 사회 되길”

## 조계종 사노위, 3월 21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유엔에서 인종차별을 막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화합하는 세상을 위해 제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매년 3월 21일)을 맞아 불교계가 서울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철폐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3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한국 사회를 기대했다.

기자회견은 사노위스님들의 인종차별철폐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시작됐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부처님은 인종의 차별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셨다”며 “배고프고 추운 짐승들도 보호해 주어야 하거늘 땅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지금 인류의 모습은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해야 하지만 역대 정부는 이주노동자, 난민 등에 대하여 아주 배타적이고 반 인권적이었다”며 “정부는 경제적 수치만을 가지고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며,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배려, 자비, 더불어 삶이 국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 인종차별의 벽을 마주했을 이주민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사라 한국이주인권센터 여성아동지원팀장은 “누구나 신체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그러한 차이를 근거로 특정 집단을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차이를 빌미로 일부 집단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현상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노위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한국사회를 기원했다.

이주민 대표들의 발언이 끝난 후 혜문 스님과 박정형 한국이주센터 사무국장이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지구상의 인종차별이라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인종문제로 벌어지는 모든 폭력, 고통이 없어져, 모든 인류가 평등, 평화, 평온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 범어사·해봉문도회 ‘천년을세우다’ 동참

## 범어사 1억원 · 해봉문도회 5000만원 희사

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정총림 범어사와 해봉문도회가 종단 핵심 불사인 ‘천년을세우다’에 각각 기금을 희사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3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사진 왼쪽〉진우 스님은 감사를 표한 뒤 “주지스님 취임 이후 금정총림과 범어사가 안정화되고 대중들도 잘 화합해 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불교를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오 스님은 “부산불교 중흥과 종단 숙원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오 스님은 “오는 10월 5일 범어사와 부산불교연합회 신도들이 함께 경주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제자들의 모임인 해봉문도회도 3월 20일 ‘천년을세우다’에 50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오른쪽〉 예방에는 문도회 운영위원장 탄원 스님을 비롯해 탄암·오심·허허·탄보·탄정·탄무 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른스님(자승 대종사)께서 계실 때 여러 불사와 포교, 전법을 위해 애쓰셨고, 그 뜻을 종단차원에서도 잘 받들어 이뤄나갈 것”이라며 “문도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 이민우 기자






#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대학원 입학식

## 3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서
## 승가대학 7명 · 대학원 9명




묘엄 스님의 유지를 이어 비구니 교육에 힘쓰고 있는 계율도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3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녕사승가대학 및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올해 봉녕사에는 승가대학 7명, 승가대학원 9명(전문과정 7명·연구과정 2명) 등 총 16명이 입학했다.〈사진〉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받는 삶을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내가 가진 것, 고집, 번뇌, 나쁜 습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닦아 주는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입학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수행의 기틀을 만들고 실천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수행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재학생을 대표해 승가대학 입승 능현 스님은 “처음 겪게 될 강원 생활이 낯설고 어렵겠지만 도반스님들과 화합하고 스스로를 살피다 보면 무시이래 쌓아 온 내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인욕의 복밭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함께할 즐겁고 어려운 모든 순간이 좋은 인연, 좋은 날이 되도록 처음 마음속에 발원했던 신심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입학생들에게 봉녕사는 합격증서와 꽃다발을, 봉녕사 신도회는 입학축하금 등을 전달했다.

김내영 기자

# “RHS명상상담, 보살 삶 실현 도와야”

## 조계종 포교원, 포교종책 연찬회 개최

“RHS명상상담은 ‘고통의 완화와 치유’라는 상담의 목표는 같으나 도달하는 방식에서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고통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그다음 단계인 연기적 삶, 보살의 삶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담자들을 안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3월 15일 개최한 ‘제83차 포교종책 연찬회-명상상담의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사진〉

서광 스님은 ‘명상상담에 대한 이해·전망·과제:RHS명상상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RHS명상상담의 정의와 특징, 활용방안, 지향점 등을 제시했다. ‘RHS(Recovering the Human Spirit)명상상담’은 인간 본연의 정신(영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전통 불교수행을 기반으로 서양의 정신치료와 명상과학(뇌과학)이 결합된 다양한 명상기법을 사용해 현대인들이 당면한 심리적, 사회적, 대인관계 등 삶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날 서광 스님은 RHS명상상담의 활성화 방안으로 △상담의 목적이 치유에서 깨달음을 향한 수행으로 발전할 것 △기존 상담이 갖는 접근성과 대중성의 한계 극복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AI 등 4차 산업과 연계 △RHS명상상담 전문가 훈련·배양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다.

김내영 기자

# 문화사업단, 외국인 1천명에 템플 할인

## 1박 2일 3만원에 제공
## 공식 홈페이지서 접수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3월 18일부터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eng.templestay.com&www.templestay.com)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외국인에 한해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며,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사찰별 대표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 화계사의 범종체험 및 스님과의 대화, 인천 연등국제선원의 선명상 및 걷기명상, 강원 낙산사의 108배와 108염주꿰기, 경북 김천 직지사의 명적암 암자 포행, 전남 구례 화엄사의 스님과의 차담 등 28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나이와 종교,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라며 “지난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연계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